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18 호

2020 년 1 월 1 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2019 년 UNGC 활동 및 임팩트
2. UNGC 런칭 20 주년 Leaders Summit
3. UNGC Open Day (1/16, 1/31, 2/7, 2/14)
4. 통일과 SDGs 토크콘서트 (1/17)
5. 2020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연간 계획안

■ 본부 소식

1. [Executive Update] 기후행동 확산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촉구
2. UNGC, 부패 척결을 위한 4 개년 글로벌 이니셔티브 발족

■ SDGs 소식

1. [SDGs 솔루션] 공기로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2. [Goal 4, 8, 13] 국내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 – 한국임업진흥원
3. [SDG 미디어 존] 1.5°C 미래를 위한 비즈니스 앰비션

■ UNGC 회원 뉴스

1.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사회적 책임' 강화 나선다
2. 미래에셋대우, 사회적 책임투자 채권 발행성과를 글로벌에서 인정받아
3. LG 화학 지속가능경영으로 사회·환경가치 높인다
4. 최태원의 '2030 사회적 가치'... 개인·사회·환경 품는다

■ CSR 뉴스

1. The UN Went Full Force on Climate Change This Year, But Will It Change the Business World?
2. 온실가스 배출 기업 부담 커진다... 배출권 유상할당 10%로 증가
3. 20년 이상 무분규 기업의 공통점? 'B·T·S'
4. 대기업 일제히 '세대교체' 인사... 여성·융합형 인재가 뜬다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UNGC 신 연회비 정책 도입에 따른 연회비 청구서 발행일 변경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UNGC의 Ambition 1.5°C 배지를 착용한 그레타 툰베리>

'1.5°C를 위한 비즈니스 앰비션-우리의 유일한 미래' 캠페인 여정

6월 13일, 리세 킵고 사무총장,
30여명의 비즈니스리더와 함께
SBTi에 서명



9월 23일, UNGC 민간부문 포럼
까지 총매출 2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87개 주요 기업 SBTi 참
여



7월 23일, 총매출 1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28개 기업,
기후행동에 참여



12월, COP25 기간까지
프랑스 연간 직접 배출량에 만큼의
배출량을 갖는 177개 기업 캠페인
참여

[Join the movement for #OurOnlyFuture >>](#)

2. 기술분야에서의 글로벌 목표 달성 지원

리스본에서 열린 웹 서밋에서 UNGC 는 UN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부문 및 PVBLC 재단과 함께 여러 시리즈의 생방송 인터뷰와 패널토론을 통해 글로벌 목표를 위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솔루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7 만여명의 혁신가와 사업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웹 서밋은 기술기반 기업의 창립자 및 CEO, 그리고 스타트업의 정책입안자 및 정치인들이 새로운 글로벌 비즈니스 시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UN TV 와 SDGs 미디어 존에 업로드된 토론 방송에는 토니 블레어(Tony Blair) 전 영국 총리, 안나 게다(Anna Gedda) H&M 지속가능성 총괄, 쿠미 나이두(Kumi Naidoo) 엠네스티 인터네셔널 사무총장, 아마드 알헨다위(Ahmad Alhendawi) 스카우트 연맹 사무총장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영향력 있는 연사들이 참석해 인사이트를 공유했습니다.



웹 서밋 2019, SDGs 미디어 존 성과(11/5 -7)

- 세션 수: 24개
- 연사: 44명
- 비디오 시청 건수: 46,490회

(live and on-demand)

[웹 서밋 2019 하이라이트 보기](#)

3. 지속가능한 비즈니스가 좋은 비즈니스 – SDGs를 위한 금융 티핑 포인트 형성

기업 지속가능성이 기업 전략에 핵심 분야가 됨에 따라, 리더들은 더 나은 사회적 선을 위해 기업투자 및 금융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UNGC 는 금융 분야의 책임자들이 비즈니스 변혁과 SDGs 내재화에 필요로 하는 가이드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원칙의 문제: 투자에 대한 티핑 포인트

지난 3 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BlackRock)은 각 상장지수펀드 (Exchange Traded Funds, ETF) 내 발행자의 몇 퍼센트가 UNGC 의 10 대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향상된 투명성의 새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 조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서비스 회사, BNY Mellon 도 고객이 UNGC 10 대 원칙에 기반하여 포트폴리오 투자를 추적할 수 있는 다양한 보고 도구를 출시했습니다.

4 월에는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사무총장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투자자 연합(Global Investor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lliance)을 아디스 아바바 행동 아젠다에 의해 형성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UN 의 재정 전략의 일환으로 창설했습니다. 그 결과 기업 부문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30 명이 SDGs 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향후 2 년 동안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2) SDGs 투자 포럼(SDGs Investment Forum) 발족

3 월, UNGC 와 PRI 는 SDGs 와 연관된 투자의 기회와 과제에 중점을 둔 새로운 유형의 모임인 SDGs 투자 포럼을 함께 런칭했습니다. 첫 SDG 투자포럼이 열린 브라질 상파울루의 B3 본사에는 200 명 이상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참석자가 한 자리에 모여 민간부분이 글로벌 목표 달성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10 월, 요하네스버그 거래소가 개최한 두번째 SDG 투자 포럼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포함한 기업 및 금융 중개가 어떻게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부문의 재정을 동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12 월 밀라노에서 열린 세번째 포럼에서 UNGC 는 기업의 재정을 SDGs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금융의 중심에 두도록 디자인된 2 년 간의 프로그램을 포함한 최고재무책임자(Chief Financial Officers, CFO) 테스크포스를 발족했습니다.



[제 1 회 SDGs 투자 포럼\(in 브라질\) 하이라이트 보기](#)

[제 2 회 SDGs 투자 포럼\(in 남아공\) 하이라이트 보기](#)

4. 책임있는 비즈니스의 주류화를 통한 글로벌 목표의 지역화

2019 년 UNGC 는 글로벌 목표 달성과 미래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형성을 위한 독창적인 플랫폼을 제공하며 청년 비즈니스 리더들과 협업했습니다.

1) SDGs 선구자(SDG Pioneers)

UNGC 는 매해 비즈니스를 글로벌 목표달성을 위한 선한 동력을 활용하고 있는 비즈니스 리더인 'SDG 선구자'를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SDG 선구자는 SDGs 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책임있는 비즈니스가 자사의 성과 달성도 공헌하는 점을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19 년에 UNGC 는 본인의 일을 통해 SDGs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 10 명의 35 세 이하 청년 전문가들을 선정했습니다.



[2019 년 SDGs 선구자 보기](#)

2) 젊은 SDGs 혁신가(Young SDG Innovators)

젊은 SDGs 혁신가 프로그램(The Young SDG Innovators Programme, YSIP)은 청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갖추는 한편, 혁신을 주도하고 실질적인 지속가능성 솔루션을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입니다. 10 개월 간 진행되는 본 프로그램은 현재 11 개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세히 보기](#)

3) 타깃 젠더 이퀄리티(TARGET GENDER EQUALITY)

2020 년 초 출시될 새로운 글로벌 임팩트 이니셔티브, Target Gender Equality 는 기업이 모든 비즈니스 및 모든 수준에서 여성 대표와 리더십에 대한 야심차고 기한이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타깃 젠더 이퀄리티 런칭 영상 보기](#)

4) MAKING GLOBAL GOALS LOCAL BUSINESS

전체 95 % 이상을 차지하고 전 세계적으로 다수의 고용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은 주로 각 국가 내에서 운영됩니다. UNGC 는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글로벌 목표 달성을 가속화하고자 영국, 캐나다, 미국, 중동, 포르투갈, 동 아프리카 및 멕시코 로컬 네트워크와 함께

일련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일련의 행사들은 총 7 개국의 기업, 정부, UN 및 시민 사회의 2,500 명 이상 참가자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5. 디지털 임팩트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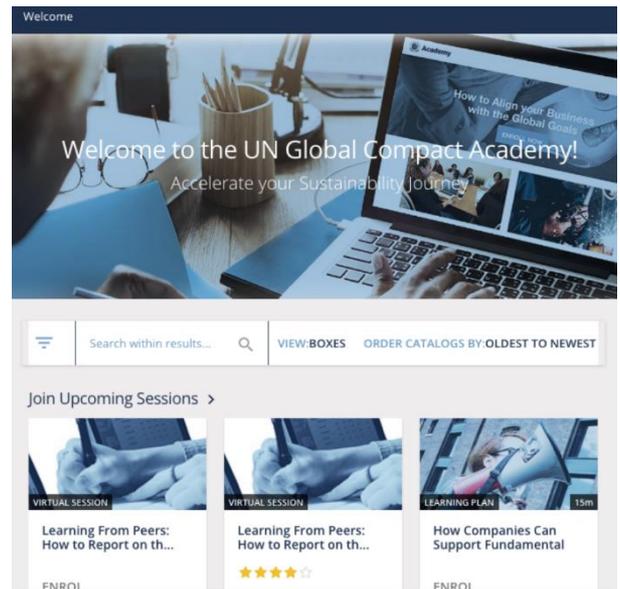
디지털 연결성을 세계가 직면한 도전을 해결하는데 전례없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19 년 UNGC 는 더 많은 청중과 미디어에 다가갈 수 있도록 그 어느때보다 노력했습니다.

1) 아카데미 운영

UNGC 아카데미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한 러닝 플랫폼입니다. 2019 년 한 해 동안 16 개의 세션과 3 개의 인플루언서 시리즈가 제공되었으며, 80 개국의 비즈니스 리더들이 참여했고, 5 개의 언어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스페셜 브리핑: UN 기후 행동 서밋부터 COP25 까지](#)

[아카데미 더 알아보기](#)



2) 커뮤니케이션 임팩트

웹사이트 방문자: 1.5 만 명 (2018 년 대비 23%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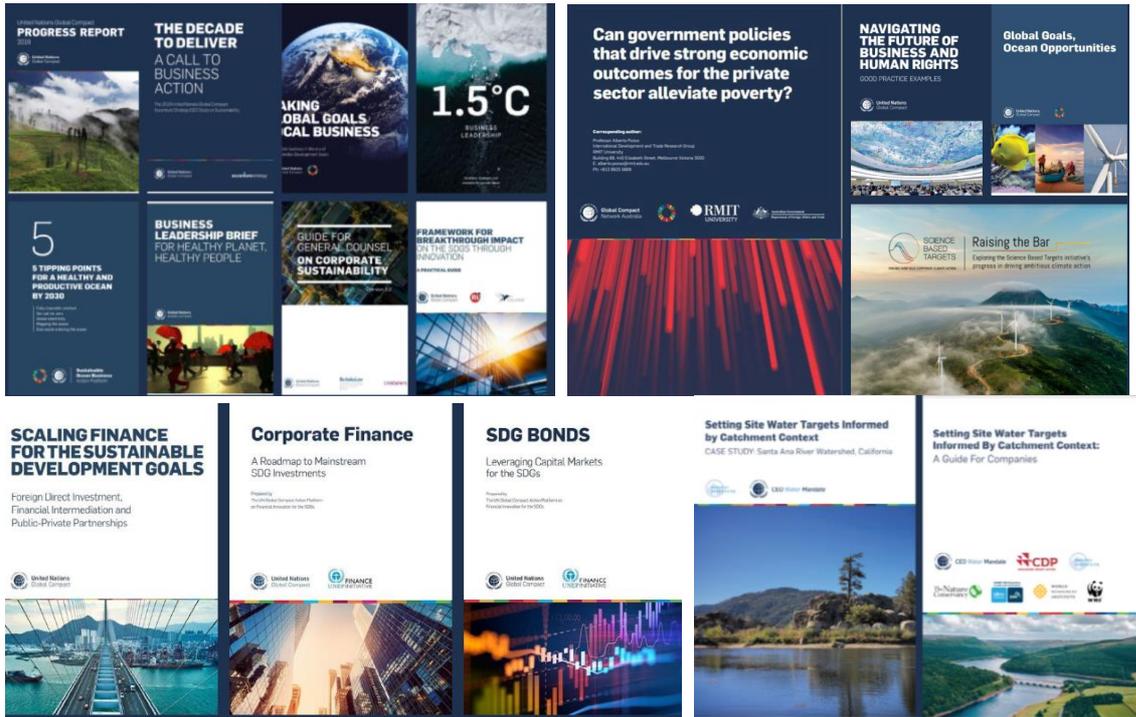
잠재적 미디어 시청: 32.3 조 뷰 (2018 년 대비 158% 향상)

신규 소셜미디어 팔로워: 43,000 명 (2018 년 대비 58% 향상)

신규 월간 뉴스레터 구독자: 7,000 명 (2018 년 대비 24% 향상)

[뉴스레터\(Monthly Bulletin\) 구독하기](#)

1) 2019년 전체 발간물



- [2019 유엔글로벌콤팩트 이행보고서](#)
- [“1.5°C를 위한 비즈니스 리더십” 보고서](#)
- [최고법무책임자를 위한 기업 지속가능성 가이드 2.0](#)
- [건강한 지구와 인류를 위한 비즈니스 리더십 보고서](#)
- [SDGS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혁신 프레임워크](#)
- [GLOBAL OPPORTUNITY REPORT 2019](#)
- [SDG BONDS: LEVERAGING CAPITAL MARKETS FOR THE SDGS](#)
- [UN GLOBAL COMPACT-ACCENTURE STRATEGY 2019 CEO — THE DECADE TO DELIVER: A CALL TO BUSINESS ACTION](#)

[UNGC Library](#)

유엔글로벌콤팩트는 2019년에 거둔 성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에 20주년을 맞는 유엔글로벌콤팩트가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 비즈니스 행동과 임팩트 창출해 나갈 새로운 10년을 여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히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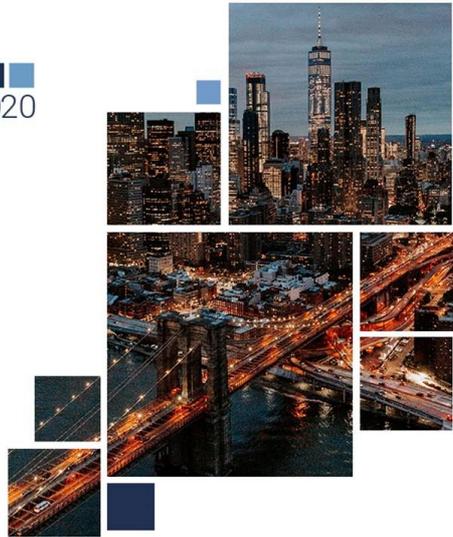
2. UNGC 런칭 20주년 Leaders Summit



유엔 글로벌콤팩트 출범
20주년 행사에
초청합니다.

2020년 6월 15-16일, 뉴욕

#LeadersSummit



2020년의 문턱에 접어들면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시한이 10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올해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출범 20주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뜻 깊은 새해를 맞이하여 유엔글로벌콤팩트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의 역할, 다자주의의 미래, 유엔의 가치에 대하여 전세계 회원사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인 UNGC Leaders Summit 2020을 개최합니다. 세계 최대의 기업 지속가능성 논의의 장이자 축제가 될 Leaders Summit은 2020년 6월 15일-16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됩니다. 특히 금번 행사는 유엔 본부 총회장 및 뉴욕 최대의 컨벤션 센터인 제이콥 재비츠 센터에서 진행되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탄생지이자 글로벌 기업활동의 심장부에서의 뜻 깊은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UN 사무총장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재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UN GLOBAL
COMPACT**

LEADERS ■ ■
SUMMIT 2020



리세 킹고
유엔글로벌콤팩트 CEO



알 고어
미국 前 부통령



자밀라 자밀
배우, 사회운동가

- **일시:** 2020년 6월 15-16일
- **장소:**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총회장, 제이콥 재비츠 센터
- **주요 일정:**

기조연설/ 환영 리셉션 / 소규모 세션 / 네트워킹 / 전시관 운영* / 문화행사 등

금번 Leaders Summit 행사는 뉴욕 최대의 컨벤션 센터인 제이콥 재비츠 센터에서 개최되어 참여기업이 직접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행사기간 동안 보다 활발하고 풍부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기업의 활동과 관련 제품을 포춘 500 대 기업의 최고경영진과 세계적인 리더를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일정 금액 후원을 통해 6월 16일 제이콥 재비츠 센터에서 기업 홍보 부스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제이콥 재비츠 센터 전시관 전경 (예시)>

15-16 일 본 행사 외에도 14 일에는 뉴욕의 곳곳을 경험하실 수 있는 투어 및 행사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14 일에는 전 세계를 일주하는 크루즈이자 UN 특별협의 자격을 가진 NGO로서 세계시민 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피스보트(PEACE BOAT)가 뉴욕에 정박하는 날로, 내부 투어 등 오직 뉴욕에서만 가능한 다양한 문화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사 주간 하이라이트



6월 14일 일요일



6월 15일 월요일



6월 16일 화요일

참가 등록 웹사이트에서 UNGC Leaders Summit 2020 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2020년 1월 31일까지 얼리버드 옵션으로 티켓 할인이 가능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본 행사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사무처(☎02-749-215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UNGC Leaders Summit 2020 더 알아보기 / 얼리버드 티켓 등록]

3. UNGC Open Day (1/16, 1/31, 2/7, 2/14)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세계 최대 글로벌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UNGC)'의 한국 네트워크입니다.

2019년 UNGC에 가입한 신규회원사 혹은 변경된 담당자들을 초청해
지속가능경영 동향 및 UNGC 주요 사업에 대해 안내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간담회는 UNGC 활동에 대한 이해를 더하고 실무자들의 다양한 현안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참석해주신 분들께는 UNGC 최신 발간 자료가 제공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20.1.16. (목) / 1.31. (금) / 2.7. (금) / 2.14. (금)

시간: 오후 3시 30분 - 5시 30분

장소: UNGC 한국협회 사무처 (시청역 순화빌딩)

대상: UNGC 회원 기업 및 기관 실무자 (최대 15명, 선착순 마감)

프로그램: 기업 지속가능성 동향 및 UNGC 활동 소개 / UNGC 담당자 네트워킹

문의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박재영 연구원
T. 02-749-2150 /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참가 신청]

4. 통일과 SDGs 토크콘서트 (1/17)



국제사회와 한반도가 함께 달성해 나아가 할 공동의 목표, 통일과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통일에 있어 SDGs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 보편의 비전으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의제입니다. 또한, SDGs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회복 촉진 및 포괄적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합니다.

통일과 평화 이슈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다양한 의제들과 깊은 관련이 있고 더 나아가 SDGs 목표 이행이 평화 체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북한도 SDGs와 연계하여 2016년 '유엔전략계획 2014-2021 (UN Strategic Framework 2017-2021 DPRK)'을 세워 식량 및 영양안보, 사회개발 서비스, 복원력과 지속가능성 및 데이터와 개발관리를 포함한 4가지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한반도의 SDGs 이행에 있어 정부, 기업 및 시민단체 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통일 시대의 주체가 될 우리 청년들이 SDGs 관점으로 통일을 바라보고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한반도 발전과 평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과 비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통일과 SDGs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2020년 1월 17일(금) 13:30 - 17:00

장소: 마포구 잔다리로 6길 5 레드박스페이스 (홍대)

주최: 유엔글로벌컴팩트 한국협회

후원: (재)통일과 나눔, (사)리더십코리아

대상: 통일과 지속가능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 100명

Invitation Only

선착순 마감입니다

프로그램

시간	구분	내용
13:30 - 14:00 (30')	등록	
14:00 - 14:05 (5')	환영	인사말 - UNGC
14:05 - 14:10 (5')		인사말 - 통일과 나눔
14:10 - 15:10 (60')	세션 1 - 통일과 SDGs - 오준 제 24대 주 유엔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연사 발표
15:10 - 15:30 (20')		연사와의 대담
15:30 - 15:40 (10')	세션 2 - 통일과 SDGs, 청년과 기업의 역할 - 이은영 국제푸른나무 국장(좌장) - 김수연 KT 사회공헌팀장 - 이은경 UNGC 한국협회 실장 - 청년패널 (이영찬)	토론
15:40 - 16:50 (70')		
16:50 - 17:00 (10')		

연사 소개 '오준' 前 주 유엔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 現)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이사장
- 前) 제 24대 주 유엔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UN 경제사회이사회 의장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의장

신청 : 아래 신청 링크나 QR 코드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forms.gle/p5GzsoJkvWdziWAc6>

문의: 여지원 연구원 02-749-2149 gckorea@globalcompact.kr



신청 바로가기



[참가 신청]

5. 2020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연간 계획안



2020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연간 계획안

- 회원사 실무진 대상 아카데미 및 이슈별 세미나를 통한 CSR/지속가능성 이슈 교육 및 네트워킹 기회 확대
- BIS(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기업 반부패 법 제도, 정책 지원 및 기업 역량강화와 반부패경영 논의 확대
- 기업과 인권, 반부패, SDGs 등 이슈별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회원사 간 정보 공유 및 동료 학습 플랫폼 제공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대상 기업 지속가능성 이슈 전파 및 가입 확대
-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SDGs, SRI 등 기업 지속가능성 관련 국내외 동향의 회원사 공유, 실제적인 툴,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한 CSR/SDGs 이슈의 고도화 및 내재화 지원
- 글로벌 우수 사례 공유 및 국내 우수 사례 대외 소개 및 UNGC 플랫폼 참여 확대
- 정부, 언론,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 유관기관의 협업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성 아젠다 국내 확산
- CSR/SDGs 관련 정책 제안 및 국회 입법 활동 지원으로 UNGC 이슈의 지속적 확산 도모

<p>Jan. Fe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GC Open Day 및 회원사 간담회 (1/16,1/31,2/7,2/14) · [1/17] 통일과 SDGs 토크 (통일과 나눔 재단) · [1~2월] Business Integrity Society(BIS) 정책 및 전문가 간담회 (각 1회) 	
<p>Ma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초] WEPs 증권거래소 Ring the Bell 행사 (여성가족부, 한국거래소) · [3/17] UNGC 한국협회 정기 총회 및 정기 이사회 · [3월말] UNGC 실무그룹 간담회 	
<p>Ap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초] BIS* 국회 반부패정책 브리핑 세미나 · [4월초] 반부패 조찬 포럼 (중앙데일리-국민권익위원회) · [4월중순] 제5차 Climate Action 라운드테이블 공동 개최 (WWF, CDP 공동주최) 	

May
Jun.

- [5月중순-6月초] 상반기 UNGC 아카데미 운영 (1-3차, 6개 세션)
- [5月중순] 조선일보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분과세션 공동개최
- [5/28~30] 제주포럼
- [6/15~16] UNGC Leaders Summit
UNGC 로컬네트워크총회(ALNF) (뉴욕)
- [6月말] 국회 기업 반부패 민관협력 포럼 발족 및 세미나



Jul.
Aug.

- [7月중순] BIS* 기업 실무진 대상 반부패 세미나
- [7月말] UNGC 실무그룹 간담회



Sep.
Oct.

- [9月초] UNGC 조찬 포럼 개최
- [9月중순] 매일경제 세계지식 포럼: 분과세션 공동 개최
- [10月초] BIS* 기업 실무진 대상 반부패 세미나
- [10月중순] UNGC 실무그룹 간담회
- [10/25~27] 제12회 한·중·일 글로벌콤팩트 라운드테이블
/ 한·중·일 Youth 라운드테이블 (도쿄)



Nov.
Dec.

- [11月중순] UNGC Korea Leaders Summit 개최 (하루)
- [11月~12月] 해외 CSR 포럼 개최 및 참여 (3회)
- [11月중순] Asia/Oceania 지역회의의 참가
- [12月중순] 하반기 정기 이사회



[원문보기]

본부소식

1. [Executive Update] 기후 행동 확산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 참여 촉구



안토니오 구테헤스(António Guterres) 유엔사무총장이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5)에서 열린 '기후에 대한 배려 고위급회담(High-level Meeting of Caring for Climate)'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난 주말, 연례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5) 협상이 종료되면서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기후 위기 해결에 있어 아직 나아가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에 대해 좌절했습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파리 협정, 그 이상의 유의미한 합의를 기대 했지만, COP25 는 역사상 가장 긴 유엔 기후 회담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다자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안토니오 구테헤스(António Guterres) 유엔사무총장이 밝혔듯, 희망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파리 협정 약속 이행을 위해 참여 국가들은 2020 년에 새로운 기후 행동 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0 년까지 범세계적 차원의 공동 기후 행동을 정상 궤도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

COP25 의 정치적 협상은 실패했지만, 기업, 투자자, 도시 및 기타 민간부문 이해관계자들은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나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계 경제가 이미 회색 경제에서 녹색 경제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COP25에서는 콜-투-액션(call-to-action) 캠페인을 통해 170 개 이상의 기업이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C 로 제한하는 기후 목표 달성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목표는 과학기반목표 이니셔티브(SBTi)에 의해 2050 년 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net-zero) 실현을 위한 첫 단계가 될 것입니다. SBTi 에는 약 400 개의 도시, 500 개의 중소 B-Corp 기업, 그리고 4 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만으로는 해낼 수 없습니다. 각 국가가 2020 년에 기후 행동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음에 따라, 기업가와 투자자는 각국의 정부가 목표한 기후 앰비션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CEO 와 비즈니스 리더가 각 분야의 기후 운동가가 되어 2020 년에 새롭게 개정될 정부 차원의 기후 행동과 그 파급력의 중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기후변화 비즈니스 리더들은 기후행동을 위해 자사 운영 조직과 공급망 내의 운영방식을 변화시키는것은 물론 정부의 노력을 촉구해야 합니다. 정부 또한 2020 년을 계기로 기업이 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net-zero) 실현을 위해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명확한 경제개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긍정적인 "앰비션 루프(ambition loop)"를 통해서만이 에너지, 건설, 운송 등과 같은 주요 산업에서 기후 행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가 아닌 탄소세를 부과하고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며 2020 년까지 석탄 공장 건설을 중단함으로써 진정한 사업 인수와 지원을 통해서 기후 행동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최근 마크 카니(Mark Carney)를 기후 변화행동-금융 특사로 임명한 것은 세계 금융기후전환에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데이터, 기술 및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본격적인 에너지 전환이 전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20 년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국가 및 지역적인 차원에서 기후변화 개선을 목표로 한 글로벌 임팩트 이니셔티브(Global Impact Initiative)를 시행할 것입니다. 본 이니셔티브는 기업 UNGC 로컬 네트워크의 주도하에 기업들이 상호적이고 야심찬 기후결과를 도출하는데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것입니다.

2030 년 아젠다 달성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이 10 년 남짓 남은 지금, 우리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파리 협정이 사회의 모든 부문에 최우선 사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다 더 나은, 보다 더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 방향성을 바꾸는 것을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후 세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후변화와 불평등의 상호 연관성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책임이 가장 적지만 불공평한 세상과 온난화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변화의 결과와 비즈니스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국제협력과 다자주의에서 벗어나서는 안되며, 작은 발전의 결과에 안주할 때가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결단력 있는 기업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의 정부 지도자들이 과연 기업들의 목소리도 도외시킬 수 있을까요?

[\[자세히 보기\]](#)

2. UNGC, 부패 척결을 위한 4 개년 글로벌 이니셔티브 발족

유엔글로벌콤팩트는 12 월 19 일, 각국 지역 협회의 부패 척결을 위한 공동 노력을 지원하고 반부패 활동에 있어 민간부문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부패 4 개년 글로벌 프로젝트를 발족했습니다.

“지역 협회 내 반부패 공동노력 확대(Scaling up Anti-Corruption Collective Action within Global Compact Local Networks)” 프로젝트는 다음 3 가지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i) 반부패 공동 노력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 협회 반부패 공동 노력 플레이북(Anti-Corruption Collective Action Playbook for GCLNs)’ 개발
- (ii) 지역 협회가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해당 지역의 부패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 협회 반부패 공동 노력 플레이북’ 전세계 출판
- (iii) 공동 노력 이니셔티브에 동참하는 일부 지역 협회 지원

이와 같은 접근의 기반에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정책 대화를 통해 반부패 공동 노력에 있어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지역 협회 내 반부패 공동노력 확대(Scaling up Anti-Corruption Collective Action within Global Compact Local Networks)” 프로젝트는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Siemens Integrity Initiative\)](#)의 3 차 펀딩 라운드에 채택되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이니셔티브는 [1 차·2 차](#) 펀딩 라운드에서 지원을 받았던 유엔글로벌콤팩트 공동 노력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반부패 원칙’ 더 알아보기\]](#)

SDGs 소식

1. 공기로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스카이워터사(Skywater)는 자연적인 응결 과정과 매우 유사한 자사 고유의 증류 공정으로 공기에서 깨끗한 식수를 생산합니다. 이 기술을 통해 습도가 낮은 곳에서도 지속적으로 식수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워터 에어 머신(Skywater Air Machines)은 긴급 구호 상황이나 외지 작업 현장에 식수를 공급하여 농촌 지역 물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이 에어 워터 머신은 목적과 사용자에 따라 식수 공급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0L의 식수를 생산하는 개인용 워터 머신부터 1일 최대 3,500L의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는 기계까지 다양하며, 전기 발전기나 태양광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 때에 따라 유연한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스카이워터의 기술은 공기가 포화되어 수증기가 되는 온도인 이슬점을 변화시켜 자연적 응결 과정을 재현합니다. 이 기술을 통해 습도가 낮은 조건에서도 지속적인 식수 생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높은 습도와 21~32°C 온도가 물을 생산하기 가장 적합한 조건이지만, 스카이워터의 단열 증류 기술은 이보다 불리한 조건에서도 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기후에서 더 많은 양의 식수의 생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스카이워터 기계는 오존을 발생시켜 생산된 물을 정화합니다.

왜 우리는 스카이워터의 기술에 주목해야 할까요?

전 세계 약 12억 명의 인구가 물 부족 지역에 살고 있으며 16억명의 인구가 집수와 수송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지하수 자원의 3분의 1은 이미 고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인구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How the Global Goals are addressed



건강과 복지

오염된 식수로 인해 발병하는 설사와 콜레라와 같은 질병으로 매년 50만 2천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스카이워터 에어 머신과 같은 안전한 대체 수원을 제공하는 기술은 수인성 질병 사망자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과 위생

전 세계 인구 40%이상이 물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스카이워터 정화 기술은 깨끗한 식수원을 찾기 어려운 지역에 깨끗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합니다.

[원문보기]

2. [Goal 4,8,13] 국내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 - 한국임업진흥원



1. 기업 지속가능경영 이행 전략 및 현황

한국임업진흥원은 2012 년 산림 소득증대 및 임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준정부기관입니다. 지속가능한 임업을 선도하여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임업서비스 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5 년부터 매년 지속가능임업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본연의 사업을 통해 경제·환경·사회의 가치를 창출하는 지속가능임업활동과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진흥원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분류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LACP Vision Awards 은상('18.2.19), GSMA 지속가능경영대상('18.10.31.)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진흥원은 2017 년 UNGC 에 가입하여 양질의 교육, 깨끗한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기후변화 대응 등 9 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지지를 선언하였습니다.

2018 년 개원 7 주년을 맞이하여, 사회적 가치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임업의 사회적 가치 확산으로 국민 행복을 키우는 KOFPI'를 사회적 가치 비전으로 삼고, 기관장 중심의 사회적 가치 창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환경 보호, 국민 안전, 교육 기부 등 8 대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임업 기반 사회적 가치 창출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p>4 양질의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특성화고 지원 · 산림 인재 육성 	<p>5 성평등</p> <p>여성관리자 맞춤 교육 실시</p>	<p>7 깨끗한 에너지</p> <p>목재바이오매스 조림지 조성</p>
<p>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 활성화 ·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p>9 산업, 혁신, 사회기반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재시설물 안전 진단 · 해외산림투자 지원 · 산림분야 국제협력 사업 추진 	<p>10 불평등 감소</p> <p>비정규직 차별 해소</p>
<p>11 지속가능한 도시의 공동체</p> <p>도시숲 조성</p>	<p>13 기후변화 대응</p> <p>세계 탄소순환 기여</p>	<p>15 육상생태계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및 해외 산림 조성 · 사막화방지 조림사업

2. SDGs 전략 및 사례

Goal 4. 양질의 교육 - 임업인 맞춤형 역량강화

한국임업진흥원은 임가 소득 증대를 위해 임업인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객군을 예비 임업인(귀산촌 희망자), 현장 임업인(임산물 재배자), 전문임업인(임산물 CEO)로 분류하여 각 단계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세분화하여 교육생들이 임산물 재배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18 개 품목(7,542 m²)에서 24 개 품목(10,684 m²)으로 임산물 재배품목과 면적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임업 교육의 전문성 향상 및 온·오프라인 교육 채널 다각화로 '임가 소득 4,500 만원'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Goal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저성장·양극화 해결의 최적 수단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산림 분야의 경우, 높은 성장 잠재력에 비해 창업에 대한 지원 부족('18년도 정부 창업지원예산 2조 8,000억원 중, 산림청 창업지원예산 350억원)으로 실질적인 창업·일자리에는 타 산업 대비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산림분야 창업 및 산업 저변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일자리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18년 4월 출범한 산림형 중간지원조직인 '산림일자리발전소' 운영으로 산림 및 산림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는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역 그루매니저(창업지원가)를 통한 지역밀착형 창업지원으로 산림형 사회적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림분야 (예비)경영체 25개 발굴, 25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위한 역량강화 → 판로개척 →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애로 및 지원사업 발굴을 위한 토크콘서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금융상담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91건의 제안을 수렴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공감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 진입으로 전년대비 기업 매출 133% 증가('18년도 기준 220억원) 및 취약계층 211명 포함 전원 상용직 고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4대보험, 최저시급 이상 등) 제공으로 산림분야 일자리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Goal 13. 기후변화 대응 -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산림 탄소 활용

파리협정에 따라 각 국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7월 24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산림흡수원을 최초로 반영하여 산림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탄소상쇄제도 인지도 제고 및 인센티브 확대를 전년대비 산림탄소흡수량을 24.1% 확대(80,574 tCO₂)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환경적 개최를 위한 공동 산림탄소상쇄사업 추진 지원으로 '탄소 ZERO' 친환경 올림픽 개최에 성공하였습니다. 평창군 방림면 지역 98.2ha 면적의 산림을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등록하고, 예탁결제원·이브자리·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수자원공사 수변환경처 등 탄소흡수량이 필요한 기업에게 구매를 안내하여 거래 및 기부 유치하였습니다. 올림픽 전 과정에서 발생한 41,560 톤의 산림탄소흡수량을 통해 사회적 비용 6 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해 시민 참여형 캠페인을 운영, 유관기관 협업 탄소상쇄숲 조성 행사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산림탄소상쇄제도 인지도는 전년 대비 5.5% 상승한 61.9%로 조사되었습니다. 문화·사회적 소외계층 청소년 3,000 여 명을 대상으로 숲해설가와 함께하는 산림탄소상쇄제도 정보 제공 및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1인 1ton 줄이기 실천서약'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22년까지 매년 2ha 씩 총 10ha 조성을 목표로, 산림탄소상쇄사업 협업사업으로 강서한강공원 산림탄소상쇄숲 조성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7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국립산림과학원, 이브자리, 한국중부발전, 서울 시민 1500명과 함께 포플러나무 4,300본(4ha) 식재하여 이산화탄소 121tCO₂를 흡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흥원은 산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산림탄소흡수량에 대한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으로 산주에게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배출권거래제 산주 참여 사업유형을 신규 개발하여 산주의 거래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수종 갱신을 통한 산림경영 사업에 대한 배출권 거래제 참여 유형을 개발하여 기존 수종보다 탄소 흡수가 우수한 수종으로 재조림하는 사업에 대한 탄소흡수량 차이를 인정하여, 선도산림경영단지 9,5848ha 기준 약 19억원의 산주 거래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bout These SDGs Goals

SDGs 세부목표 4.4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 기술을 가진 청소년과 성인의 수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



유네스코(UNESCO)의 '1962 전문 및 직업 교육에 관한 권고사항'에서 기술, 직업 교육(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TVE)을 처음 집중 조명하였고, '2001 전문 및 직업교육에 관한 권고사항 개정판'에서는 기술 및 직업 교육이 고용과 취업기회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인이 사회생활에서 교육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1960-70년대 초 개도국을 지원하는 양자, 다자 협력의 핵심 요소였던 기술발전(Skill Development)과 기존의 기술 및 직업 교육(TVE)을 더한 TVSD는 1996 정책강령과 MDGs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2000년 EFA 목표 3번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생활능력과 학습 촉진에 포함되어 추진되었고, 이에 SDGs에서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SDGs 세부목표 8.3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형성과 성장을 장려하는 개발지향 정책의 촉진을 목표로 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 정의 구현이 바탕이 될 때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목표 하에 정의롭지 못한 노동 환경을 바로잡고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ILO 발족 이후 개최된 국제노동회의(1998)에서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권고사항을 채택하였고, 2002년에는 중소기업 발전을 통한 고용창출 프로그램(IFP/SEED)을 발족시켰습니다. ILO에서는 중소기업(SMEs)활성화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MSMEs)의 성장을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기업 프로그램을 2009년 발족하였습니다. SDGs에서는 ILO의 설립 목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산활동, 창의성과 혁신 지원에 더불어 MSMEs의 성장을 장려하는 개발 지향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DGs 세부목표 13.1은

기후관련 위험 및 자연 재해에 대한 모든 국가의 복원력 및 적응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기후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국제기상기구(IMO)의 국제기상학 연구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기후 관련 위험과 자연재해가 스톡홀름 선언(1972)에서 언급된 이후, 유엔총회(1989)에서는 자연재해감소를 위한 10년(1990-2000)을 지정하여, 주요 목표 달성에 관한 연례 보고와 자연재해 감소를 위한 10개년 프레임워크 도입을 명시하였습니다. 유엔환경개발회의(1992)에서 채택한 의제21에서 자연재해의 도시 생산성 저하, 경제활동의 파괴, 인구감소를 인지하고 세계자연재해감소 회의(1994)에서는 2000년 이후의 자연재해 및 위험감소 전략 수립을 위해 더 안전한 세계를 위한 요코하마 전략 및 행동계획을 선언했습니다. 효고 행동 프레임워크(2005-2015)에 이어 채택한 센다이 방재 프레임워크(2016-2030)을 통해 SDGs에서도 재해경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3. [SDG 미디어 존] 1.5°C 미래를 위한 비즈니스 앰비션

기업의 역할과 과제, 2020 년의 기후행동 전망



<댄 토마스(Dan Thomas) 유엔글로벌콤팩트 홍보최고책임자, 안토니오 멕시코(Antonio Mexia) 에너지아 드 포르투갈 (Energias de Portugal, 이하 EDP) CEO, 케빈 콘래드(Kevin Conrad) 열대우림국가연맹(The Coalition for Rainforest Nations) 상무>

유엔글로벌콤팩트는 11 월 5 일부터 7 일간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개최된 '웹서밋'에 참가해 3 일간 SDG 미디어 존을 운영했습니다. 약 7 만여명의 혁신가와 기업가들이 참석한 이번 웹서밋에서는 IT 기업의 창립가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 정책결정자, 정치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글로벌 비즈니스의 새로운 시대를 구상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매 회 뉴스레터에 SDG 미디어 존에서 다뤄진 각 주제 별 토크의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5°C 미래를 위한 비즈니스 앰비션>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크는 케빈 콘래드(Kevin Conrad) 열대우림국가연맹(The Coalition for Rainforest Nations) 상무, 안토니오 멕시코(Antonio Mexia) 에너지아 드 포르투갈 (Energias de Portugal, 이하 EDP) CEO, 댄 토마스(Dan Thomas) 유엔글로벌콤팩트 홍보최고책임자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토크는 글로벌 기후대응에 있어 기업의 역할과 과제와 더불어 기업의 2020 년 기후행동 전망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기후변화 행동에서 민간부문의 현재 역할과 활동 수준은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케빈 콘래드는 기업들이 기후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기업들은 유엔의 글로벌 탄소 회계(Global Carbon Accounting)에 동참해야 하고 매년 탄소배출권 회계 처리 상황을 추적 및 보고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 자연 시스템(Natural System)에 투자하고 1.5°C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탈탄소화(Decarbonization)를 우선순위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토니오 멕시코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기후행동에 대한 확신과 방향성을 통합하고 기후행동을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인 대응방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케빈 콘레드는 개발도상국의 예시를 제공하면서 “적절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설정함으로써 정부의 참여도를 높이고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다”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 년의 기후변화와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에 대한 전망?”에 대한 질문에 안토니오 멕시코는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인식도가 변화하면서 정부, 기업 및 시민과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며 낙관적인 견해를 공유했습니다. 케빈 콘레드는 기후행동에 있어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유엔 기후협약과 글로벌 탄소회계 시스템(Global Carbon Accounting System)에 대한 정보와 노하우를 회사사들에게 제공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UNGC 회원뉴스

1.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사회적 책임' 강화 나선다



- 12월 23일, 대전 특구재단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사회적가치 이행 및 윤리경영 실현을 위한 가입증서 수여식을 진행함.
- 이번 UNGC 가입을 계기로 재단운영 및 중장기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대 분야 10대 원칙을 준수한 이행실적을 UNGC에 제출하는 등 재단의 다양한 활동을 국제사회에 공개할 예정임.
- 이날 가입증서 수여식에 이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특구재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윤리경영 실현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행사례' 강의를 함께 진행함.
- 양성광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은 “최근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001' 인증획득 등 청렴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며, 특구재단의 사회적가치 이행 및 윤리경영에 대한 비전 포부를 밝힘.

[\[머니투데이\]](#)

2. 미래에셋대우, 사회적 책임투자 채권 발행성과를 글로벌에서 인정받아



- 12월 16일, 미래에셋대우는 글로벌 금융전문지 '더에셋(The Asset)'이 주관하는 '2019년 트리플 A 컨트리 어워즈'에서 올해 한국 기관에서 발행한 해외 공모채권 가운데 '베스트 FIG(Financial Institutions Grop) 채권'으로 선정됨.
- 더에셋은 "미래에셋대우는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회적 책임투자(SRI) 채권시장에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시하고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며 "한국 기업 최초로 만기 구조를 다변화해 지속 가능 채권과 선순위 채권을 동시에 발행함으로써 새로운 발행구조를 제시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언급함.
- 사회적 책임투자(SRI) 채권은 발행 대금을 친환경, 친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채권이며, 최근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 및 발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발행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미래에셋대우는 SRI 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하면서 "국제시장에서 대한민국 대표 증권사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글로벌 증권업계에 사회적 책임투자의 새로운 기준을 수립했다"고 언급함.

[\[비즈니스포스트\]](#)

3. LG화학 지속가능경영으로 사회·환경가치 높인다



- LG화학은 국제연합(UN)이 정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연계해 청소년 교육과 친환경·에너지 분야의 나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 LG화학은 미래사회 및 과학인재 육성과 관련해 △화학놀이터 ('내가 만드는 세상, 재미있는 화학 놀이터') △화학캠프 ('젊은 꿈을 키우는 화학캠프') 등 사업장 인근 초/중학생 대상 교육 지원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함.
- 2017년부터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과 함께 공익성 및 지속가능성이 높은 친환경 분야의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LG소셜캠퍼스'를 운영함.
- LG 화학은 친환경 분야의 사회적 기업들이 성장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자금지원, 무이자 대출 및 사무공간 대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총 160억을 지원할 예정임.

[\[머니투데이\]](#)

4. 최태원의 '2030 사회적 가치'..개인·사회·환경 품는다



- 12월 27일, SK는 '2030 사회적 가치 추진 방향'을 개인, 사회, 환경 등 3개의 분야로 세분화하고 분야별 키워드를 '더 나은 삶의 질(개인)', '같이 성장하는 사회(사회)', '깨끗한 지구(환경)'로 잠정 수립함.
- 이를 위해 최근 SK에서 16개의 계열사 인원 약 80여명이 참여하는 'SK 사회적 가치 방향성' 태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 이하 TFT)도 내년 5월까지 운영하면서 논의 내용을 '소셜밸류 커넥트(SOVAC) 2020'에서 대내외적으로 공표할 예정임.
- 또한 SK는 올해 기업과 조직의 사회적 가치 측정 도구를 마련하고 이를 연말 임원 평가에 반영하는 등 사회적 가치의 체계화 및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아시아경제\]](#)

CSR 뉴스

1. The UN Went Full Force on Climate Change This Year, But Will It Change the Business World?



- As United Nations member countries wrapped up the 25th annual climate change negotiations conference in Madrid from 2 to 13 December 2019, the world saw yet another round of pledges from the private sector to do its part in fighting climate change.
- A study conducted by consulting firm Accenture, coupled with a progress report from UN Global Compact, an effort to bring CEOs into the sustainability fold, both noted a majority of the 1,000 CEOs surveyed in nearly 100 countries were not happy with the way their industries or operations were responding to the emergency.
- Nearly 800 companies agreed to conform with the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a collaboration between the UN Global Compact and think tanks like the World Resources Institute and World Wide Fund for Nature.
- On this occasion, the Partnership for Accounting Financials (PCAF) initiative was announced. PCAF includes more than 50 lenders, like Amalgamated Bank and various U.S.-based credit unions, who are going to start evaluating borrowers by their carbon footprint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of what the loan would finance, using science-based targets.

[\[Fortune\]](#)

2. 온실가스 배출 기업 부담 커진다... 배출권 유상할당 10%로 증가



- 12월 23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43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제3차 (2021~2030년)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함.
- 새롭게 의결된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배출권을 사야 하는 유상할당 비중은 현행 3%에서 2021년 이후 10% 이상으로 확대 예정임. 할당된 배출량 보다 10% 이상 줄이지 못한 기업은 유상으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함.
- 파리기후협약에서 각 당사국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담은 저탄소 전략을 수립 하도록 권고한 데에 따라 정부는 2050 장기 저탄소 전략을 수립할 예정임.
-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 12 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 25 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5) 결과가 보고됨. 총회에서는 주요 의제였던 '국제 탄소시장' 이행 규칙을 놓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팽팽히 맞서다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내년엔 다시 이행 규칙을 논의하기로 함. 다만 우리 대표단은 정부·민간 전문가 4 명이 각종 위원회와 의장직 직위에 진출하는 성과를 냄.

[\[한국일보\]](#)

3. 20년 이상 무분규 기업의 공통점? 'B·T·S'

< 표 1. 20년 이상 무분규 기업 >

기업명	무분규 기간	기업명	무분규 기간
에스엘(주)	51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주)	31년
롯데칠성음료(주)	46년	(주)현대엘리베이터	31년
동아에스티(주)	44년	(주)한진	29년
(주)유한양행	44년	한국제지(주)	25년
롯데제과(주)	32년	유한킴벌리(주)	23년
(주)세아FS	32년	-	-

- 12월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인증 노사문화 우수기업 85곳(대기업) 중 20년 이상 노사분규가 없었던 11개 기업의 노사문화를 분석해 발표함.
- 20년 넘게 이상 노사분규 없이 안정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의 문화에는 노사 간 신뢰(Believe), 소통(Talk), 상생(Share) 등 3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분석함.
- 분규 없는 사업장은 노사가 경영 계획과 노무 현안까지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며 상호 간 신뢰(Believe)를 구축해 사전에 갈등 요소를 줄이고 있다고 분석함.
- 무분규 기업들은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직원들과 대화하거나 특색 있는 노사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해를 풀고 이해를 넓히는 소통(Talk)의 장을 마련함.

[아주경제]

4. 대기업 일제히 '세대교체' 인사... 여성·융합형 인재가 뜬다



- 기업분석 전문업체 한국CXO연구소는 지난 12월 30일 2020년을 맞는 주요 대기업 임원 인사의 특징을 변화의 바람이 세차게 분다는 뜻인 '윈디(WINDY)'라는 키워드로 정리함.
- 해당 키워드는 ▲ 여성 임원 강세(Woman) ▲ 융합형 임원 선호(Intercross) ▲ 인사 폭 최소화(Narrow) ▲ 임원 수 감축(Decrease) ▲ 젊은 임원으로서의 세대교체(Young)의 앞글자를 따 줄임말.
- 올 연말 단행된 대기업 임원 인사에서는 여성 임원과 타 업종 간 융합형 임원이 두드러짐. 임원 수를 감축하는 가운데 젊은 임원으로서의 '세대교체'가 뚜렷하게 나타남.
- CXO연구소는 앞으로도 다른 업종 간 결합으로 새로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임원이 주목받을 것"이라고 분석함.
- 또한 임원 수 감축이 뚜렷하게 나타남. 동시에 CEO 뿐만 아니라 일반 임원급까지 광범위한 세대교체가 이루어짐.

[매일경제]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12 월 15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UNGC 에 새롭게 가입한 회원사는 없습니다.

2. COP/COE 제출회원

12 월 15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3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 환경재단
- 해양환경공단
- 한국광물자원공사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첫 COP 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 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첫 COE 를 제출하고, 이후 매 2 년마다 COE 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 년 후에도 COP/COE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 년도 UNGC 회원 연회비 청구 안내



1. Select Participant or Signatory

● SIGNATORY	● PARTICIPANT	● PARTICIPANT + ACTION PLATFORMS & LEAD ELIGIBILITY
<p>Signatories actively engage at their national or regional level with the UN Global Compact. Signatories receive:</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Full access to their country-specific resources and activities. 2. Basic access to the UN Global Compact digital platform and tools. 3. Opportunities to engage with the Global Compact Local Network in their country or region. 	<p>Participants actively engage at the global level with the UN Global Compact. Participants receiv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ull access to global resources and activities. • Full access to their country-specific resources and activities. • Full access to the UN Global Compact digital platform and tools. • Opportunities to fully engage with the Global Compact Local Network in their country or region. 	<p>Participants additionally have the opportunity to engage in Action Platforms (learn more) and thereby gain eligibility to be a UN Global Compact LEAD company.</p> <p>Use this form to select the Action Platforms you would like to engage in during 2018.</p> <p>Companies that engage in two or more Action Platforms, pass an integrity screen and submit an Advanced COP are eligible to be recognized as LEAD.</p> <p>Please note, Action Platform annual contributions are in addition to the Participant tier annual contribution.</p>

2019 년도 연회비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신(新) 연회비 정책을 기반으로 청구될 예정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는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UNGC 2030 비전 및 2020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 자발적 기여에서 의무로 바뀌는 신(新) 연회비 정책을 도입하고, 본부와 한국협회 간의 재정 배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UNGC 의 모든 영리 회원사는 참여 정도에 따라 참여레벨(Participant 또는 Signatory) 선택 및 매출액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추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2019 년 1/4, 2/4, 3/4 분기, 4/4 분기 청구 대상 회원]

가. UNGC 본부 및 한국협회 참여회원 (1/4, 2/4, 3/4 분기, 4/4 분기 납부대상)

- 참여레벨 (Participant / Signatory) 선택 완료 기업
- 연매출 500 억 미만의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기관

나. UNGC 본부 참여회원 (한국협회 미참여 회원)

- 참여레벨 (Participant/Signatory) 선택 완료 기업

<19년도 연회비 미납 회원사>

경기도시공사, 한국남부발전, BGF 리테일, 이화다이아몬드공업, 한국조폐공사, JB 금융지주, 한국연구재단, 구미시청, 울산광역시 남구청,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한국벤처투자,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산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 극지연구소, 카라반이에스, 한국전자인증, 리인터내셔널, 마콜컨설팅그룹, 동명전기, 바이오제네틱스, 제니컴, 디씨티오토, 비엘에치아쿠아텍, 제주관광공사,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미술등록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카이스트경영대학, 신한대학교, 늘푸른직업재활원, 환경실천연합회, 경실련, 메디피스, 얼반유스아카데미, 한국품질재단, 사회복지법인열매나눔재단, 당감종합사회복지관, CJ 제일제당, 케이티에스테이트, 롯데제과, SK 이노베이션,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서스틴베스트, 나인, 인피니티컨설팅, 델타이엔씨, 원광대학교,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LG 디스플레이, SK 주식회사, 한화건설, 삼덕통상(주), 스완커뮤니케이션, 씨엔커뮤니케이션, (주)에프엠비디, 아진트랜스,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한국인권재단, 베타니아복지재단, 진해장애인복지관,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사)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 한국에너지공단, (사)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충북대학교

1 월 31 일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미납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레벨 선택을 안내 받은 매출액 500 억 이상 기업은 참여레벨 (Participant 또는 Signatory)을 조속히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레벨 선택 관련 기한 변경 또는 의견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49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http://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 또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